

한국 병원 영양실의 환자 영양 교육 실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옥 희 운

배화여자 전문대학

Assessment of the Dietary Consultation and Patient Education Practices in the Hospital Dietetics

Hae Woon Ohk

Bae Hwa College

=ABSTRACT=

A total of 35 hospitals throughout Korea were surveyed for the assessment of the educational function of dietitia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depth of practices were diagnosed in such areas as: 1. The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hospital dietitians 2.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 consultation performed by the hospital dietitians 3. Systems and methods of patient instruction practiced by the dietitians, and 4. Prospectives in establishing the nutrition education center for the in-and out-patients. The major findings are:

1. Approximately half of the hospital dietitians feel positive about the practicality of their college education for the job. Extremely small number of them are on any kind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 2) The monthly average of only 20 patients at one hospital receive diet consultation or nutrition education service from dietitians. The 50% of the consultation cases is taken up by the patients with diabetes and various circulartory diseases followed by the tube feedings, liver and renal diseases with less frequencies
- 3) Not even a single hospital has an office for the diet consultation and nutrition education for the in-or out-patients. Very few hospital dietetics have educational aids and/or any feedback system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consultation. Charting is not practiced by most dietitians leaving no record of their contributions to the patient care.
- 4) Although the necessity of the nutrition education center in the hospital is strongly recognized among dietitians the progress has been blocked by such obstacles as the poor system in the hospital administration in general, short in funds, lack of preparation in the dietetics and the lack of recognition both by the hospital administration and by the dietitian themselves.

접수일자 : 1980년 1월 14일

서 론

1960년도 후반기 이후 우리 나라 대학의 영양학 교육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보아왔다. 그러나 과연 영양학도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어느 정도 고루 분포되어 그 지역사회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회의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우리 나라 대학 자체에서도 투명한 교육 이념을 확립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¹⁾. 풍요한 사회에서는 과잉 영양에서 오는 각종 질환에 의한 사망율이 해마다 치솟고 있고, 개발 도상 사회에서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단백질 및 주요 영양소의 결핍증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의 이면에는 사회, 문화적인 복잡성, 인구 분포의 문제성, 경제 및 농업면의 모순 등이 뿌리박고 있으며 경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보살핌을 의연 당한 노인, 유아층, 알코올 중독자 등의 영양 관리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 이룩할 국민 보건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개선에 영향 관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방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아보는 profession으로 펼쳐 발전시킴이 시기적으로 매우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인 환자를 위한 병원 영양사의 환자 교육에 관한 현황 파악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1. 영양사 자신을 위한 교육에 관한 실태.
2.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의 내용에 관한 실태.
3. 환자 상담의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실태.
4. 영양 상담실 설치를 위한 타개점에 관한 실태.

연구 대상 및 방법

1979년 현재 전국의 약 288개소의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입원설 여부 실태와 병상 수 및 취업영양사의 수에 관한 내용이 발표된 바 없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기재를 의뢰한 결과 관계 영양사에 의하여 직접 기재회송된 35개소의 병원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²⁾. 본 연구에 사용된 35표본이 내포하는 영양사의 총 수는 58명으로서 이는 1979년도 3월 당시 대한 영양사 협회의 발표에 준할 때 전국 병원 영양사 208명의 약 27.9%를 내포한다⁴⁾.

표 1. 표본의 구성(지역별, 병원, 종류별, 영양사 수에 따른 구분)

지역종류	종합병원	병원	합계
서 울	13(31)	7(7)	20(38)
지 방	11(16)	4(4)	15(20)
합 계	24(47)	11(11)	35(58)

() : 영양사 수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영양사의 자체교육 및 환자 영양 교육 실행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총 28개 관련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1979년 10월~12월에 우편으로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수집된 data는 각 항목의 특징에 맞도록 집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및 토의

1. 병원 영양사 자신을 위한 교육에 관한 실태

1) 대학 교육의 실무 활용정도에 관한 실태 :

약 51.5%의 영양사가 학교에서 습득한 내용이 실무에 매우 내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48.5%는 약간 도움이 되거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들이 지적한 요당 사항은 의학용어와 사무 관리에 관한 교육의 강화 등이 있다.

1966년 보건 사회부가 영양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을 설정한 이래로 이들이 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은 비교적 일률적이라고 볼 수 있다⁵⁾.

이들이 처해 있는 각 병원의 취업조건 및 환경이 다양하면 할수록 대학에서의 교육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 지겠으나 한편 그들을 사전 교육함에 있어서 핵심을 잡기란 용이하지 않게 된다.

2)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실태 :

우리 나라 병원 영양사의 업무 내용은 구매·사무관리, 생산·분배관리 및 재정·인사·행정관리 등의 일반 사무처리 방향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므로 그들의 Continuing education 실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불과 1 할도 안되는(35 표본 중 3개소) 영양사 만이 의부에서 제공되는 강의나 Seminar 참석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듭되는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입원 환자 치료의 가장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가 악화 되어가는 환자의 영양 불량 상태라는 점은 전체 의료진의 각성을 축구할 짚각한 문제점이다⁶⁾⁷⁾⁸⁾. 병원 영양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case 별 질병에 따른 식이 관리

및 환자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함이 마땅하여 이를 위한 그들의 끊임없는 자체 교육은 필수적이다.

2. 병원 영양사의 환자를 대상으로한 영양상담의 규모 및 내용에 관한 실태

1) 영양 상담 대상 환자의 수적 실태 :

본 연구를 통하여 표본 전체로 부터 접계된 월 평균 환자 영양 상담의 총 건수는 695건으로서 이는 병원 1 개소당 월 평균 20건의 환자 상담밖에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하루에 한명의 환자도 영양 교육이나 상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설정이고 보면 병원 영양실의 환자 교육 및 상담의 기능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2) 환자 영양 상담 내용의 성질에 따른 분류 :

병원 영양사들이 담당하는 환자 상담의 내용을 조사한 바 특별식이에 관한 이해 부족에 대한 교육이 60%로서 가장 자주 행해지고 있으며 특수한 기호에 맞는 요구 사항에 관한 처리가 25.7%에 달하고 나머지 14.3%의 경우에는 음식의 질, 양 및 service에 관한 불평에 대한 해명 등으로 구성된다.

3) 환자 영양 상담 내용의 대상 질병에 따른 분류 :

본 연구의 표본 병원에서 행하는 영양 교육 및 상담의 대상 환자의 질병 종류와 상담 전수의 빈도는 표 2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상담 전수의 약 36%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고혈압, 심장병, 동맥 경화증 등의 순환계 환자를 위한 경우가 약 13%로서 이 두 분야가 전체 상담의 약 1/2을 차지한다. 그 외에 Tube feeding 환자, 간장 질환 및 신장 질환 환자의 상담 순서로 나타났고 기타 질환의 경우에는 극히 적은 수의 상담이 행하여지고 있다.

질병의 종류와 치료 과정의 단계를 막론하고 각 환자의 영양 관리 및 식이 요법이 전체 의료 관리에서 차지하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필수성 및 중요성은 항상 새로이 상기되어야 할 성질의 분야이다. 요즈음 선진 국의 의학계에서는 영양학의 중요성을 새삼 인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의과대학 교과 과정의 영양학 강화를 비롯해서 기타 관련 의학 계통의 학문에 있어서도 영양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행하여지는 환자 교육에 있어서도 영양 교육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병원 행정측에게도 점차로 보다 많은 전문인을 예방 위주의 교육을 위하여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병원측의 총 운영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⁹⁾⁻¹³⁾.

3. 병원 영양사의 환자 상담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실태

표 2. 영양교육 및 상담의 대상 환자종류와 월별 상담 빈도수

질병 종류에 따른 교육 대상	월평균상담건수	%
1. 당뇨병 환자	249	35.8
2. 비만 환자	17	2.5
3. 고혈압, 심장병, 동맥, 경화증 및 기타 순환계 환자	90	13.1
4. 위장 질환 환자	28	4.0
5. 알코올 중독 환자	0	0.
6. 간장 질환 환자	67	9.7
7. 신장 질환 환자	64	9.2
8. 임신부	21	3.0
9. 빈혈 환자	12	1.7
10. 유아 질환	36	5.2
11. 알레르기 환자	28	4.0
12. 암 환자	5	0.7
13. Tube feeding 환자	77	11.1
총 695	100.0%	

1) 환자 상담의 장소에 관한 실태 :

35개소 표본 병원 중에서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영양 상담을 위한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환자 상담의 장소로 가장 자주 선택되는 곳은 병실안 환자 bed 가까운 곳(57.1%의 경우)이며 다음으로 영양실(39.3%의 경우) 그리고 기타 병원 회의실, 환자 휴게실, 인공 신장실, 병원 식당등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상담에 전연 손을 놓 대고 있는 영양실만도 11개소나 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2) 환자 영양 교육의 체계화 및 자료에 관한 실태 :

특별 식이에 관한 영양 상담을 행함에 있어서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비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1%의 병원에서는 자주 취급하는 특별 식이 별로 상담 및 교육 내용 요약이 비치되어 있어서 어떤 영양사가 맡던지 관계없이 공통된 내용을 교육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인 59%의 병원에서는 통일된 guideline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채 담당하는 영양사가 재량껏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이 실시한 교육 사설 및 내용이 환자의 종합적인 medical care의 한 부분으로서 기록됨이 당연한 바이나 이 점을 위한 체계 확립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교육의 실시 내용을 환자 chart에 직접 기록하는 병원은 단 2개소 뿐이고 13개소에서는 간호일지나 영양실 내에 비공식적

으로 기록, 비치하며 그 외의 병원에서는 영양사의 가장 전문적인 기능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채 그들의 환자 교육을 위한 노력 내지는 공헌의 인정을 축구할 수 있는 근거 조차 남지 않는 실정이다.

3) 환자 영양 교육의 효과 측정 방법에 관한 실태 : 본 연구의 대상 병원에서 실시하는 영양 교육의 효과 측정 방법을 표 3에서와 같이 네 단계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이 일방적인 교육의 형태로 실시함에 그치고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의 확인을 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병원 영양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 보조 자료로는 계량 cup, 계량 spoon, food model, chart, poster, slide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을 비치한 병원은 24개소이며 아무런 교육 보조자료도 없는 병원이 11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 cup과 계량 spoon 조차도 35개소중 16개소에서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food model을 사용하는 곳은 불과 5군데 밖에 되지 않아 영양과 자체내의 보다 활발한 자료 개발이 축구되는 바이다.

성공적인 영양 교육 시행을 위하여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립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종합,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침과 동시에 자진하여 습관을 변경하고 새로 흡수한 정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짧은 입원 기간안에 달성하기란 불가능하여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점차 의해환자의 영양 교육에 더욱 중점을 기울

표 3. 환자 영양 교육의 효과 측정 방법에 관한 실태

효과 측정의 깊이 정도	해당 병원수(21)	% (100)
1. 1회 일방적인 교육이므로 그 환자가 어느정도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	7개소	33.33%
2. 담화 형식으로 상담하여 환자로 하여금 요점파악 여부를 발표케 하는 정도로 그친다.	9개소	42.86%
3. 환자가 반듯이 납득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확인한다.	2개소	9.52%
4. 환자로 하여금 Diet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중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2차 3차의 상담 기회를 마련한다.	3개소	14.28%

이고 있는 추세이다.¹⁴⁾¹⁵⁾

앞으로 우리나라 병원 영양사들이 활발히 환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영양사의 인력 충당 뿐만아니라 현 시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만이라도 영양사의 활약을 보다 체계화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양 교육에 다양한 보조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환자의 교육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내용의 요지를 재 표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는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양면의 기능을 지니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될 수 있는 poster나 chart 등의 구비 실태조차 심히 저조한 점은 속히 탈피 되어야겠다.

4. 병원내 독립 영양상담실 설치를 위한 타개점에 관한 실태

대부분의 영양사들이 병원내 독립된 영양 상담실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을 시도함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토로되었다. 가장 번번히 언급된 장애 요소로서는 병원 전체의 system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고(37.7%), 운영 자금 및 장소 문제와(24.5%) 영양과 측의 준비 부족도(20.8%) 자주 언급되었으며, 병원측의 인식부족을 축구하는 의견도 다수(15.1%) 접수되었다. 이들이 앞으로 영양 상담실을 설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병원장을 비롯한 행정 책임자의 인식 및 후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양사가 가장 많았고(51.3%) 영양사 자신들의 각성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주장과(25.6%) 의사, 간호원 및 기타 medical staff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아쉬워 함이(23.1%) 표현되었다.

결론 및 제언

1) 병원 영양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실태 :

영양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비교적 공통된 필수과목을 이수한 병원 영양사들의 대학 교육이 실무에 주는 도움 정도에 관한 느낌은 긍정적인 해석이 50%, 부정적인 해석이 50% 정도로 나뉘었고 실무에 필요한 continuing education의 혜택을 받고있는 영양사의 수는 극히 소수여서 이들의 전공이론의 source는 거의 전적으로 대학 교육의 그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 환자를 대상으로한 영양 상담의 규모 및 내용에 관한 실태 :

병원 영양실에서 담당하는 환자 상담이나 영양 교육의 규모는 극히 적은 것으로서 표본 병원 1개소당 월 평균 20 명의 환자 밖에는 상담의 혜택을 받고있지 못함이 발견 되었다. 이들이 환자 상담을 하는 이유는 특별 식이를 교육하기 위한 경우가 60%를 차지하고 개인기호에 맞는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가 25.7%, 그리고 음식의 질, 양 및 service에 관한 불평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경우가 14.3%를 차지한다. 대상 환자의 질병 중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병, 동맥 경화증 및 순환계 계통이 약 50%에 달하고 기타 tube feeding 과 간장 질환, 신장 질환이 각각 약 10% 정도를 차지하며 기타 질환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3) 환자 상담의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실태 :

영양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으며, 환자의 bed 근처, 영양실, 휴게실 등의 산만한 장소에서 대부분의 영양 상담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 되었다. 특별 식이를 위한 상담시 담당 영양사에 관계 없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을 통일성있게 요약하여 비치한 곳은 41% 정도이고, 그 외에는 담당하게 되는 영양사가 그때 그때 재탕껏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교육 사실 및 교육 내용이 환자 chart 안에 적절 기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기록 system 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에 사용되는 보조자료의 종류와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이 시행하는 교육방법은 일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자의 적극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의 측정 및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영양 상담실 설치를 위한 타개점에 관한 실태 :

영양사들 간의 병원내 독립된 영양 상담실의 필요성은 강력히 인식되고 있으나 병원 전체의 system이 체계화되지 못한 겸과 운영자금, 영양과 측의 준비 부족 등의 장애 요소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병원측의 인식 및 후원과 영양사 자신들의 작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병원 영양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환자의 영양 교육 및 상담이 소규모로 나마 행하여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병원 영양사들의 힘에 만 맡기채 짚이 있고 체계적인 내용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관련 학제나 대한 영양사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조사 당시 Intern 을 두고 있는 병원은 단 1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즉 병원측의

소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뜻하고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에서도 겪고있는 고충으로서 점차로 대학의 field trainning 이 본격화되어서 coordinated undergraduate dietetics program 으로 과거의 Internship 이 대체됨을 피할 수 없는것이 앞으로의 전망이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32개 대학에서 영양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양학과의 교육 이념이 뚜렷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영양사 양성이 좀더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직업에 대한 준비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고 있다¹⁸⁾. 이러한 실정에서 뜻있는 대학에서는 병원 영양사 지망생을 활용하여 병원과의 적극적인 상호협조를 통하여 양측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를 성립함으로써 서로의 인력, 정보 교환과 견진한 자극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동시에 모든 병원 영양사들에게 종합적이고 통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부로서 대한 영양사 협회의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활약을 기대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이기열 : 대학에 있어서의 영양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영양학회지. 11(4) : 6, 1978.
- 2) Saint, E.G.: *The social role of the dietitian. Food and Nutr. Notes and Rev.* 34 : 96, 1979.
- 3) 의료 취급 기관 명부. 의료보험 관리 공단. 1979.
- 4) 국민 영양. 대한 영양사회. 1979. 3. p.3.
- 5) 이혜수 : 우리나라 영양학 교육의 발전. 한국 영양학회지. 11(4) : 12, 1978.
- 6) Weinsier, R.L., Hunker, E.M., Krunedieck, C. L., Butterworth, C.E., Jr.: *Hospital malnutrition: Prospective evaluation of general medical patient during the course of hospitalization. Amer. J. Clin. Nutr.* 32 : 418, 1979.
- 7) Blackburn, G.L.: *Hospital malnutrition; A diagnostic challenge. Arch. Internal Med.* 139 : 278, 1979.
- 8) Martyak, S.H.: *Malnutrition in the hospital. J. Amer. Med. Assoc.* 233 : 770, 1975.
- 9) Young, E.A. and Weser, E.: *Integration of nutrition in medical education. J. Nutr. Educ.* 7 : 112, 1975.
- 10) Verstraete, O., Scudder, G., Karni, K., and Mier, M: *Developing interdisciplinary courses for allied health students: A retrospective*

- view, J. Allied Health 7 : 99, 1978.
- 11) Hinthonne, R.A. and Jones, R.: Coordinating patient education in the hospital. Hospitals 52 : 85, 1978.
- 12) Olson, R.E.: Clinical nutrition-where human ecology and internal medicine meet. Nutr. Today 13 : 18, 1978.
- 13) Carney, M.K. and Keim, S.T. Jr.: Cost to the hospital of a clinical training program. J. Allied Health. 7 : 187, 1978.
- 14) Guthrie, H.A.: The role of nutrition education in dietary improvement. Food Tech. 32 : 89, 1978.
- 15) Minza, L.: Out-patient diet counselling: A report on the pilot project of the Saskatchewan Dietetic Assoc. J. Canadian Diet. Assoc. 39 : 201, 1978.
- 16) Simulation techniques applied to diet instruction Diab. Educ. 4 : 11, 1978.
- 17) Roach, F.R., Hoyt, O.P., Reed, JG.: Evaluation of a coordinated undergraduate program in dietetics. J. Amer. Diet. Assoc. 73 : 154, 1978.